

2011. 08. 08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1년 8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KDI 홍보팀

TEL 02) 958-4030 FAX 02) 960-0652 E-mail press@kdi.re.kr

KDI-한미경제학회(KAEA) 공동 「국제화, 인적자본 그리고 불평등」 국제컨퍼런스 개최

2011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Conference
Globalization, Human Capital and Inequality

- 일 시: 2011년 8월 9일(화) 09:00~17:30
- 장 소: KDI 대회의실 및 별관 중회의실
- 주 최: KDI · 한미경제학회(KAEA)

□ KDI는 8월 9일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「국제화, 인적자본 그리고 불평등」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.

- 이번 컨퍼런스는 (1) 교육과 불평등, (2) 세계화와 불평등, (3) 금융 및 주택시장 등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음.
- 금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인적자본, 불평등 등 고전적인 테마로 선정한 이유는, 최근 전개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고찰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연구 주제라는 판단에 근거함.

□ 이러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금번 컨퍼런스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국내외 저명 경제학자들이 초청되었음.

-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만 교수는 기초연설을 통해 '성격심리학과 경제학 적용'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
 -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실업보험과 연금대출 문제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을 공저자인 이화여대 윤정열 교수가 발표할 예정
 - 금번 컨퍼런스에는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회원인 브라운대학교 글렌 라우리 교수의 '고정관념과 불평등: 신분선택의 신호이론을 바탕으로'라는 논문을 공저자인 KDI 김영철 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
- 총 4개 세션으로 구성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교육과 불평등, 국제화와 불평등, 부동산시장 위기, 국제화와 금융시장 등에 대한 제반 이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
- 세션 I에서는 중앙대학교 강창희 교수의 사교육과 성적 향상 효과에 대한 발표와 미주리주립대학교 박강훈 교수의 소득불균형과 관련한 교육 및 세계화에 대한 발표, 고려대학교 김진영 교수의 재혼의 경제학적 문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
 - 세션 II에서는 앞서 언급한 글렌 라우리 교수의 논문을 포함하여, 브라이언트대학교 김종성 교수의 한국 소득불평등에 대해 발표가 진행될 예정
 - 분과회의A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새기노벨리주립대학교 박홍열 교수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가 주택거품 및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발표, 뉴욕연방준비은행 이동훈 이코노미스트의 부동산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사이클에 대한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
 - 분과회의B에서는 알라바마대학교 이준수 교수의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분석에 대한 발표, 켄터키대학교 김윤배 교수의 변동환율제도와 거시경제 상호의존성에 대한 발표, 노틀담대학교 이병주 교수의 이자율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될 예정

□ KDI는 한미경제학회(KAEA)와 함께 2003년부터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, 그간 고령화, 기업환경, 생산성,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제공해 왔음.

○ 금번 컨퍼런스 역시 한국과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책제언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

※ 문의: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(958-4042)

[프로그램]

09:00-10:30 **개회식**

개회사: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

환영사: 현오석 KDI 원장 / 조인구 KAEA 회장

기조연설: 제임스 헤크만 시카고대학교 교수
- 성격심리학의 경제학 적용

전체 세션 I

교육과 불평등

좌장: 조인구 일리노이대학교 교수

10:40-12:30

발표: 강창희 중앙대학교 교수 / 공저자: 현보훈

-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연구: 중학교 자료를 이용한 사교육비 지출의 성적 향상 효과 분석

토론: 김희삼 KDI 연구위원

발표: 박강훈 미주리주립대학교 교수

- 소득불균형과 관련한 교육과 세계화: 국제적 증거

토론: 김인경 KDI 연구위원

발표: 김진영 고려대학교 교수

- 재혼의 경제학적 문제

토론: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

12:30-14:00 **오찬**

전체 세션 II

국제화와 불평등

좌장: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

14:00-15:20

발표: 김영철 KDI 연구위원

(공저자: 글렌 라우리)

- 고정관념과 불평등: 신분 선택의 신호이론을 바탕으로

발표: 김종성 브라이언트대학교 교수

- 한국 소득불평등의 동태적 분석

토론: 김영철 KDI 연구위원

분과회의

[A]

부동산시장 위기

좌장: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

15:30-17:20

발표: 박홍열 새기노벨리주립대학교 교수

(공저자: 장혜정, 카우스타프 미즈라)

-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가 주택거품 및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미친 영향: 자기조직화의 관점에서

토론: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

발표: 이동훈 뉴욕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

- 부동산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사이클, 그리고 주택시장의 위기

토론: 송인호 KDI 연구위원

발표: 윤정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

(공저자: 조지프 스티글리츠)

- 실업 시 생애 관점에서의 대출과 실업보험의 최적 선택

토론: 김광호 한양대학교 교수

[B]

국제화와 금융시장

좌장: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

발표: 이준수 알라바마대학교 교수

-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분석

토론: 조미진 KIEP 연구위원

발표: 김윤배 컨터키대학교 교수

- 변동환율제도와 거시경제의 상호 의존성

토론: 정대희 KDI 연구위원

발표: 이병주 노틀담대학교 교수

- 유위험이자율평가 퍼즐: 비대칭적 반응

토론: 정규철 KDI 연구위원

17:20-17:30

폐회식

〈기조연설〉 성격심리학의 경제학 적용

제임스 헤크만(시카고대학교 교수)

- 성격심리학은 사람들의 행위와 선택에 관한 이해를 폭넓게 함.
 - 성격(personality)은 성격특성(personality traits)을 측정된 성격(measured personality)에 대응시키는 반응함수로 정의할 수 있음.
 - 측정된 성격은 선호, 제약, 정보 등의 경제학 모형과 연관됨.

- 성격특성은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예측변수로 이용될 수 있음.
 - 성격특성은 IQ 등의 인지능력 만큼의 예측력을 보유
 - 많은 실증분석들에서 성격특성이 경제적 성과, 건강, 범죄행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음.

- 성격특성은 생애주기에서 고정된 것은 아님.
 - 성격특성은 경험과 투자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가능
 - 특히 어린 시절의 개입은 큰 효과를 나타냄.
 - 따라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

【 총회 I: 교육과 불평등 】

〈발표 1〉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연구: 중학교 자료를 이용한 사교육비 지출의 성적 향상 효과 분석

강창희(중앙대학교 교수)

(공저자: 현보훈)

- 본 연구는 사교육 지출이 한국의 중학교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.
 - 한국교육개발원(KEDI)의 2004년 보고서 『학교 교육의 실태 및 수준분석: 중학교 연구』의 데이터를 이용.
- 사교육 지출과 학업 성취도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도구변수방법(IV method)과 비모수적 구간추정법(Nonparametric bounding method)을 사용함.
- 분석 결과, 두 방법 모두 사교육의 효과가 중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.
 - 도구변수방법을 실시한 결과, 국어, 영어, 수학의 사교육 지출이 10% 증가했을 때 각 과목당 성적은 최대 1.24%, 1.28%, 0.75% 향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 - 뿐만 아니라, 비모수적 구간추정법의 결과 역시 사교육 지출의 증가가 성적 향상에 끼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.

〈발표 2〉 소득불균형과 관련한 교육과 세계화 : 국제적 증거

박강훈(미주리주립대학교 교수)

- 본 연구는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불균형과 관련한 교육 및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함.
 - 소득수준과 소득 불균형 사이에 쿠즈네츠(Kuznets) 역 U자곡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힘.
 - 그러나 역U자곡선은 모형에 추가적인 변수가 사용됐을 때, 안정성(robustness)이 부족함.
 - 본 연구는 역 U자가설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, 교육변수가 소득불균형에 중요한 설명변수가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함.
 - 또한, 세계화와 무역개방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.
- 실증분석 결과, 교육변수가 더 나은 소득 분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또한 교육수준의 분산이 클수록 소득 불균형이 있는 반면,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정도는 소득분포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음.
 - 학교교육의 차이는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,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큰 효과임.
- 세계화 수준이 더 높을수록 소득불균형 정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 - 반면 자유는 그것이 경제적 자유 또는 정치적 자유인지 상관없이, 소득 불평등에 미미한 영향을 줌.

〈발표 3〉 재혼의 경제학적 문제

김진영(고려대학교 교수)

- 본 논문은 ‘자녀의 자질의 분산’ 혹은 ‘인적자본투자의 성과’의 측면에서 결혼, 특별히 재혼의 추가적인 이점을 밝혀냄.
- 재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, 결혼의 이득·이점에 관하여 초혼과 재혼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않았음.
 - 그동안의 연구에서 언급한 결혼은 초혼·재혼과 같은 결혼의 순서를 막론하고 자녀 양육, 분업, 소비의 공유 등과 같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음.
- 저자는 재혼의 이점을 증가시키는 사회경제적 변수(socio-economic variables)를 이론적으로 밝히고 경험적으로 테스트하며, 어떤 사람이 더 재혼할 가능성이 높을지를 서술함.
- 만약 부모(parents)가 위험 회피적이고 그들의 효용이 자녀의 자질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면, 부/모(parent)는 자녀의 자질에 대해 위험을 분산(risk hedge)하고, 부/모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유인을 지님. 특별히 부/모는 다른 파트너와의 재혼에서 자녀를 가짐으로써 그 위험(risk)을 줄임.
- 위의 전제는 다음과 같음.
 - 부모가 자녀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릴 때, 인적자본투자의 성과로서의 ‘자녀의 자질’은 불확실함.
 - 동일한 부모 밑의 자녀들의 자질 분산은 유전의 영향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, 이복형제/자매의 경우에는 그 연관 정도가 보다 낮음.

□ 나아가, 부모들이 예비적 저축(precautionary saving)에 대한 동기를 갖는 한, 부모의 재혼 후에 혼합 가정(blended family)에서 태어난 자녀가 온전가족(intact family)의 자녀보다 인적자본투자를 적게 받는다는 사실의 함의를 밝힘.

○ 기존의 이론/경험적 연구의 초점은 어머니가 재혼하여 의붓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된 자녀들의 복지 및 성과에 맞추어져 있었음.

- 이는 그 자녀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, 자녀들의 양육권을 지닌 전 부인에게 흔쾌히 돈을 보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. 이를 '신데렐라 효과(Cinderella effect)'라 함.

○ 본 연구의 모델의 결론은 위와는 대조적임. 즉, 재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생물학적 친부모에게서조차도 투자를 덜 받게 되고, 따라서 더 낮은 성과를 보이게 됨.

□ 본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.

○ '자녀의 다각화를 위한 재혼'에 관한 이론은, 혼외 출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.

- 자녀의 다각화를 추구하지만 합법적 재혼의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이 되는 여성들의 경우, 결국에는 혼외 출산의 결과를 낳게 됨.

○ 이러한 설명은 또한 난혼(亂婚, promiscuity)에 대한 인종적 고정관념을 논박함.

- 그동안의 연구에서 흑인은 난잡한 혼전(婚前, premarital) 및 혼외(婚外, extramarital) 성관계를 갖는다고 이야기되어 왔음.

- 그러나 본 논문의 이론에 따르면, 흑인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반면에 미래 소득이 인구 평균에 비해 불확실하기 때문에, 자녀 다각화 전략에 착수하는 것임.

- 따라서 이는 흑인의 생물학적 난잡성의 결과가 아니라,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.

【 총회 II : 국제화와 불평등 】

〈발표 1〉 고정관념과 불평등: 신분 선택의 신호이론을 바탕으로

김영철(KDI 부연구위원)

(공저자: 글렌 라우리)

- 본 연구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신호체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신분 선택 행동을 동태적 모형을 통해 설명함.
 - 집단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 모형의 가정을 완화함.
 - 그 결과, 고정관념이 형성된 집단으로의 선택적 진입과 탈퇴가 발생하는 사회적 행태를 설명할 수 있었음.
- 인적자본투자 비용이 낮은 유능한 구성원들은 그들이 좋은 평판을 가진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큼.
 - 집단 구성원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며 균형에서 집단의 평판이 분화된다면, 평판이 좋은 집단에서는 더 많은 인적 자본 투자가 나타남.
 - 또한 인적자본투자 비용이 낮은 구성원이 좋은 평판의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데, 이들의 구성은 불균일하게 나타남.
 - 이것이 인적자본비용의 분포가 집단 내에서 내생적으로 분화되도록 하는 것이며, 유인 환류(incentive feedback)를 강화시킴.
- 본 연구는 집단 구성원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고정관념 형성 균형의 존재성과 안정성을 검정함.

- 내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파생된 불평등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집단 내부의 불평등보다 크다는 것을 밝힘.

- 본 모형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코드 스위칭이나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등의 다른 많은 사회적 환경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음.

〈발표 2〉 한국 소득불평등의 동태적 분석

김종성(브라이언트대학교 교수)

- 1998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한국의 소득 불평등 동향을 살펴 보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음.
 - 전체 소득 구성요소 중 근로 소득의 중요성 확인하였으며, 이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 불평등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.
 - 소득 분배 전반에 걸쳐 세금 감축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, 소득 불평등 문제는 영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경제 상황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, 이전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중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.
- 소득 불평등 문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2010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의 중재 결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룸.
 - 2006년 이후 2010년에 지니계수(Gini coefficient), 키타일 비율(quintile ratios), 빈곤율 모두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.
-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이전소득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몇몇 종류의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됨.
 - 포퓰리즘(populism)에 기반을 둔 공공 정책은 개인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소득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실과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성실한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함.
 - 또한, 충분한 자원과 관련 정책과의 적절한 조율을 통하여 정책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.

【 분과회의 A : 부동산시장 위기 】

〈발표 1〉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가 주택거품 및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미친 영향: 자기조직화의 관점에서

박홍열(새기노밸리주립대학교 교수)

(공저자: 장혜정/카우스텝 미스라)

- 본 논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가 주택거품 및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미친 영향을 자기조직화(Self-organization)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음.
-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원인 분석에 있어 주택거품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분리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주택거품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는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.
- 주택버블 현상의 형성과정을 자기조직화 이론의 틀로 분석,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향후 이상과열 현상의 문제점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.
- 모형의 실증적 검사를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증권화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거품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있음.
- 모형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는 주택담보대출률과 역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음.
- 모형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1995년의 주택거품의 원인으로 지목됨.
- 모형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주택거품은 그의 확장 중에는 건축 붐과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나 붕괴 시 미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음이 드러났음.

- 생물학과 열역학의 자기조직화 원리를 현재의 주택거품 분석에 적용할 경우 이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나 여느 이상과열의 문제에 대한 해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
-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의 연구에 있어 자기조직화 원리는 매우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음.

〈발표 2〉 부동산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사이클, 그리고 주택시장의 위기

이동훈(뉴욕연방준비은행)

(공저자: 앤드류 호그후트/조셉 트레이시)

- 미국 경제는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에서 여전히 회복 중에 있음.
 - 주택시장 가격 하락은 금융위기로 이어지며 심각한 불황을 초래했음.
 - 위기가 세계시장으로 확산되어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금융·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었음.
 - 자산 가격의 변동 중, 주택가격의 변동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, 주택가격의 급속한 상승과 잇따른 폭락으로 주택 소유자들과 금융기관, 그리고 경제 전체에 있어 큰 비용이 발생되었음.

- 주택담보대출자의 성향이 주택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침.
 - 기존에는 언더라이팅 기준의 변화로 주택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, 대출자 구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음.
 -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구성이 보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화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(time horizon)를 가지는 경우 주택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게 되는데, 조사 결과 경기호황 때 미국에서 거품이 심했던 4개 주에서 이러한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의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음.
 - 이는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고, 이후 대출을 통한 주택 소유자들의 부채 상승으로 주택 매각이 급증하는 등 거품 붕괴를 초래했음.

□ 주택가격 거품으로 인한 또다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도구가 뒷받침되어야 함.

- 중국의 경우, 다주택자들의 계약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고,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부동산세를 신설했음.
- 2007년 위기 이후 주택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
- 부동산시장 정책은 신용 사이클 과정에서 주택가격 변동의 폭을 완화하고, 이를 통해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

<발표 3> 실업 시 생애 관점에서의 대출과 실업보험의 최적 선택

윤정열(이화여자대학교 교수)

(공저자: 조지프 스티글리츠)

- 본 연구는 실업에 직면한 개인이 공적으로 제공되는 실업보험과 자신의 연금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최적 선택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함.
- 만약 대출을 통한 대응방식이 도입되고, 실업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지 않다면 다음의 3가지가 성립함.
 - 직업 탐색의 탄력성과 무관하게 실업시 최적 대응은 양(+)¹의 대출을 받는 것임.
 - 실직한 청년층의 소비는 실직한 장년층보다 큰 반면에 그 역은 차입이 없는 경우에 성립함.
 - 청년층에게는 더 많은 대출과 더 적은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임.
- 대출은 보험의 역할을 하며, 최적 대출공급은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.
 - 시장에서의 대출이 유발하는 외부효과로 인해 실직시 과도한 차입, 취업시 과도한 저축 유인이 존재함.
 -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사회최적 대출은 정부에 의한 공동계약(pooling contract) 방식으로 구성됨.
- 비시장적 조직이 제공하는 연대보증(co-signing) 프로그램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.

- 대출연대보증은 낮은 유인비용으로 조직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임.
- 따라서 탐색 유인을 개선함과 동시에 시점간 소비를 평활화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실업제도 개편이 가능함.

【 분과회의 B : 국제화와 금융시장 】

〈발표 1〉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분석

이준수(알라바마대학교 교수)

-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(Free Trade Agreements, 이하 FTA)이 협정 회원국들의 무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음.
 - 특히, FTA를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가 회원국들의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
- 일부 선행연구들은 경제부국의 경우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반면, 빈국들은 오히려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
 -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FTA 체결 이외에 각 국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
 -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효과를 분석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계량경제학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FTA 체결이 협정당사국들의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- 분석 결과 FTA 체결은 협정 당사국들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역 규모를 유의미하게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음.
 - FTA 체결은 당사국들의 무역 규모를 증대시켰으며 그 증가폭은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따라 170%에서 210% 수준으로 나타남.
 - 또한, FTA 체결에 따른 무역규모 변화는 협정 당사국들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의 차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음.

〈발표 2〉 변동환율제도와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

김윤배(켄터키대학교 교수)

- 본 논문은 변동환율제도 도입이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그 절연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.
 - 기존의 환율정책에 따른 경제 비교분석 연구는 자본의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 간 차이를 환율 체제의 변화만으로 설명함.
- 본 논문에서는 Johansen의 공적분 및 오류 수정 방법(methods of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)을 활용하여 자본의 이동성을 명시적으로 감안, 금리와 재화 가격의 국가 간 전파 및 공행성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시험하였음.
 - 실증분석을 위해서 캐나다와 일본의 1957년 1/4분기부터 1995년 2/4분기까지의 분기별 대미 물가지표 및 금리 자료를 활용하였음.
 - 자료는 1957년 1/4분기부터 1971년 4/4분기까지를 고정환율제도 시기로 I기, 1973년 1/4분기부터 1984년 4/4분기까지를 1차 변동환율제도의 시기로 II기, 1985년 1/4분기부터 1995년 2/4분기까지를 활발한 금융시장 개방을 동반한 2차 변동환율제도의 시기를 III기로 나누어 분석하였음.
 - I기의 경우 캐나다와 일본 모두 미국경제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였으나 변동환율제도로의 정책변환 이후의 II기와 III기에는 미국경제와 보다 통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.
 - 캐나다의 경우 환율이 두 나라 간의 재화 및 금융 시장을 연계하는 데에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함.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환율은 물가와 금리의 조정을 담당하기보다는 외부충격으로 작용함.

- 본 논문은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은 변동환율제도 도입과 함께 증가하였고 환율의 국가 간 지표의 조정역할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음.
- 금융시장개방 이후 전보다 거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한 것은 국가 간 정책 공조보다는 고도의 금융자산의 이동성에 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.

〈발표 3〉 유위험이자율 평가 퍼즐: 비대칭적 반응

이병주(노들담대학교 교수)

-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UIP(Uncovered Interest Rate · 유위험이자율 평가) 이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음.
 - UIP 이론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국제적 차익거래에 의해 해당 국가 통화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됨.
 -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UIP 이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했으며, 이런 이론과 실제의 불일치는 UIP 퍼즐로 불리고 있음.
- 본 연구는 다수의 국가별 양자 환율(cross-country bilateral exchange rates) 자료를 이용해 UIP 기울기 계수를 추정함.
 -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름.
 - 37개 통화의 양자 환율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한 결과, 단기 UIP는 잘 성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비됨.
- 기존 연구들이 UIP 이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던 것은 기축통화 편익(key currency bias)로 설명할 수 있음.
 - UIP 퍼즐은 주로 기축통화에 국한되어 관찰됨(기축통화 편익).
 - 기축통화 편익은 기축통화가 더 높은 자본 수익률을 보장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남.
 - 이는 자본이동이 선물환 할증(forward premium)의 부호에 따라 비대칭적 반응(asymmetric response)을 보임을 의미.
 - 기축통화의 음(-)의 UIP 기울기 계수는 음(-)의 선물환 할증에 기인함.